



# JARA NEWS

July 2017, No. 113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r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究所) (히가시후지(東富士)센터)에서 개최했다.

외판의 손상을 중심으로 한 20만엔 정도의 견적 작성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10 회원이 참가. 견적 기술과 더불어, 차세대 자동차에서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신소재나 차체 구조 등에 대해서도 강습을 받았다. 세미나에는 프렌트와 생산, 영업 직원 등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참석했다. “BP 사업자와 정비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견적을 산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평상시 업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부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기”(동사) 때문에 자동차의 소재나 구조, 외판 수리 방법뿐만 아니라, 탈착 교체 지수와 외판 판금 수정 지수, 보수 도장 지수 등 지수의 운용에 대해서도 지도했다.

BP사업자와 정비 사업자는 초고장력 강판 등 신소재나 전자 제어 기술의 진전에 맞추어, 정비 기술 고도화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부품을 공급하는 재활용 사업자가 고객과 같은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 세미나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 세미나는 올가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15일)

## JARA, 말레이시아에서 기타지마 사장이 강연

최근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의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 자동차 애프터 마켓 회의’에서 강연했다. 이 회의의 주최자인 말레이시아 자동차 연구소(MAI)가, 자동차 리사이클링 시행 후의 10년과 일본의 현황에 대해 강연을 의뢰한 것. 기타지마 사장은 자동차 리사이클링 시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의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면서, 재활용 산업과 행정이 공동으로 쌓아 올린 그 정밀한 구조에 대해 강연했다.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내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관계자와 행정, 교육 기관으로부터 약 150명이 참가했다. 기타지마 사장은 강연 종료 후 ‘애프터 마켓에서의 모빌리티 솔루션(Mobility Solutions)’에 대한 패널 디스커션에도 패널리스트로 등단. 참가자와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하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5월 25일)

## JARA, 시즈오카에서 견적 기술 세미나 입문코스를 개최

JARA(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최근, ‘차체 정비/판금 도장(BP(Body & Painting))·견적 기술 세미나 입문코스’를 시즈오카 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자동차 연구소(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

## 다카하시상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한 식전 신임 사장 겐사쿠 씨의 취임 피로연을 겸해

사용후 자동차의 해체나 재활용 부품을 판매하는 다카하시 상회(高橋商会)는, 다카하시 겐사쿠(高橋建作) 씨의 사장 취임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한 행사를 구시로시내(釧路市内)에 있는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동사 직원과 내빈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업계에 대한 공헌을 기리는 것과 더불어 35주년 기념의 해를 성대히 축하했다. 다카하시 씨는 올해 3월에 사장으로 취임. 창업자로 35년간 사장을 역임한 다카하시 사토시(高橋敏) 씨는 회장으로 취임하며, 젊은 신임 사장을 지원해 나간다.

모두 발언에서 다카하시 회장은 회사 설립까지의 에피소드와 설립 후의 연혁 등을 말했다. 말씀 중에서 경영에 대해 “종업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갖추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선택되어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단체, 기업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많은 선한 사람들

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 특히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마이 유지(今井雄治) JARA 그룹 회장, 이케다 미노루(池田稔) 구시로(釧路) 토요타 회장, 미키 다케시(三木健) 코베르코건기(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전무 집행원으로부터 축사가 이어졌다. 축하 연회석에서 기타지마 소쇼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사장은 젊은 2세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그 후, 다카하시 사장이 등단하여, “지금의 회장님께서 내건 경영 이념 아래, 사원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 회장이 이루어 놓은 것을 더욱 파워 업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다카하시 상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힘차게 포부를 밝혔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19일)

### CO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7년5월

## 2,57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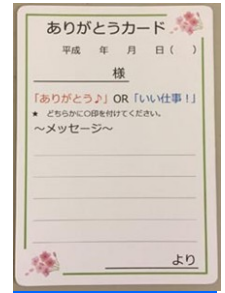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링협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다카하시 겐사쿠 사장



기념의 해를 성대히 축하했다



## NPO JARA, 이번 연도 사업 계획을 승인 세미나나 세계의 동업 연계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연합(JARA, 다카하시 사토시(高橋誠) 이사장)은 최근, 도쿄 도내에서 '제 13 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 사업보고와 수치 결산 등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임원 변경에 따라 부이사장인 도몬 고로(土門五郎) 씨(다이코상사(大晃商事) 사장)의 퇴임을 결정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임원 체제가 되었다.

2016년도의 사업보고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9회 자동차 리사이클즈 국제 회의 (IRT) 2016'(4월 20~23일)에 참가, 7월에 있던 '제1회 자동차 산업 공업 경영 세미나'의 개최 이외의 '미얀마 자동차 산업 시찰단'의 실시 등을 보고 했다.

올해의 사업 계획은 (1) 리빌드 부품의 품질 기준 명확화의 연구 (2) CO2 삭감 프로그램 '그린 포인트 시스템'의 계몽 활동 (3)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4) 세계 자동차 리사이클 러와의 연계를 꾀었다. 구체적으로는 (1) 산업 기술 종합 연구소 등과의 연계 (2) '동경 에코 생산품 박람회(ECO-PRODUCTS 2017)'에 출전 (3) 사업자를 위한 경영 세미나 (4) ARA 주최 'IRT 국제회의' 또는 'AAEF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한국·서울) 등 국제회의에 참석 등에 노력한다.

모임의 모두 부분에서, 다카하시 이사장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일본 차의 인기는 높고 재활용 부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 업계를 포함하여 세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는 젊은 경영자의 새로운 발상, 장래를 짚어질 인재 확보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JARA로서는 정보 발신에 더욱 주력한다"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1일)

## ELV기구 총회, 우량 사업자 제도 창설로 보고와 계획 승인

최근 일본 ELV리사이클기구 (ELV기구, 사카이 야스오(酒井康雄) 대표 이사)는, 2017년도 '정기 사원 총회'를 도내의 회의 시설에서 개최했다. 2016년도 사업보고와 2017년도 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회원 교류회도 실시하

여, 앞으로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2017년도에는 (1) 우량 사업자 제도의 창설 (2) 자동차 리사이클사(士) 제도의 보급 (3) 자원 순환 '귀금속류의 공동 출하 사업'에 대한 대처 (4) 자동차 보수용 재활용 부품의 규격 책정 (5) 자동차 리사이클범 관련 활동 (6)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에 대한 대응 (7)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단일화에 노력한다.

(1)에서는 자동차리사이클사(士)의 담당 업무 등이 제도의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2)에서는 강습회 개최와 교육 과정의 재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에서는 거래 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외에 추가 품목을 검토. (4)에서는 고기능 JIS 등 정비 사업의 성과로 제시된 표준 사양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다시 모아 규격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5)에서는 수지와 유리의 재활용에 대한 모델 사업 등에 관한다. (6)에서는 이 제도에 있어 자동차 재활용의 대상 직종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7)에서는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의 합류를 향한 구제안을 작성한다.

회원 교류회에서는 ELV기구가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좋은 내용의 사례집 '약간의 지혜'를 소개한 것 이외에, 작년 9월에 법인화한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연구소'가 사업 개요를 설명했다. '약간의 지혜'발행 작업 효율과 안정성 향상 102의 업무 개선 사례

ELV기구는 작업 효율과 안정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를 모은 책자 '약간의 지혜'를 발행했다. 회원 사업자가 일상 업무 속에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나 업무 개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초간이 되는 이번은 102의 사례가 모였다. ELV기구는 좋은 사례를 회원 간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평상시의 작업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책자에서는 '작업 효율' '안전' '조직의 활성화'를 주제로, 회원 사업자의 '약간의 지혜'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작업 효율에서는 타이어나 엔진 등을 운반 대차, 부품 보관용 랙, 공구 수납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화장실 바닥이 기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준비하는 등의 사례가 전해졌다.

안전에 대한 대처에서는 에어백류의 차상 작동 처리 시, 앞 유리에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차량 전체에 방염용 시트를 덮는 등의 사례가 보인다. 조직의 활성화에서는 사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드를 설치하여 업무량을 할당하는 사례, 사내에서 기쁜 일이나 감동한 것에 대해 '감사 카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케이스, 손으로 쓴 대자보를 발행하여 사내 분위기를 전하는 노력 등이 소개되었다.

ELV기구는 동 책자의 활용법에 대해, 자동차 리사이클사(士) 인정 강습회에서 소개하거나, 지역 단체

책자「약간의 지혜」

회사내에서 기쁜 일이나, 감동한 일을 '감사 카드'로 상대방에게 보낸다

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내용도 충실히 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ELV기구, 리협과 통합으로 조정 JTP도 참여 진정한 업계 단체를 설립

일본 ELV리사이클기구 (ELV기구, 사카이 야스오 대표 이사)와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협의회 (리협,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대표 이사)가 통합을 향해 조정으로 들어갔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업계가 하나가 되어 대처할 필요가 있기"(사카이 대표 이사) 때문에, 현재,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 트럭 리파인 파트 협회 (JTP, 미야모토 마사키(宮本眞希) 대표 이사)도 합류할 계획. ELV기구는 내년 정기 사원 총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상의할 계획이다. 업계의 창구 단체인 ELV기구와 부품 유통을 담당하는 리협이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한 업계 단체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ELV기구는 작년 이래, 자동차 리사이클 14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업계 관계 단체 교류회'를 개최하여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업계 전체의 의견 집약과 정보 교환을 추진해 왔다. 사용자 자동차 (ELV)의 발생 감소와 매입 가격의 고공 행진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각각의 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동)는 것이 실제 상황이며, 다양한 업계에서 진행하는 '경쟁과 협력'의 움직임이 재활용 업계에서도 높아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리협의 새로운 대표 이사로 구리하라 씨가 취임. "앞으로는 서로가 밀접하게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통합을 위한 토대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현재, 두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 운영과 회비 등 클리어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지만, JTP와 함께 통합을 향한 움직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가 발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정보 발신과 수집 능력의 강화, 차세대 자동차 대응, 인재 확보, 육성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3 단체의 통합은 업계가 하나가 되어 과제 해결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업계 안팎에서 진정한 업계 단체로 인정받기"(ELV기구)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21일 · 22일)

## 경제산업성, 베트남과 협의에 자동차 관련에서 연계 연내에 행동 계획

경제산업성은 베트남과 자동차 관련의 연계 협의를 시작한다. 양자 회담의 틀에 작업 부회를 설치하여, 연내에 행동 계획을 정리한다. 베트남도 참여하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발효가 유동적이 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역내 관세가 2018년에 철폐될 것을 노려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과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국이 2015년 7월에 설치한 '일베트남 산업 · 무역 · 에너지 협력위원회'의 산하에 자동차 및 저변 산업의 작업 부회를 설치하여, 7월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베트남은 완성차에 77~83%, 차체 및 변속기, 타

이어 등 자동차 부품에 3~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PP 협상 결과, 최장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이탈에 따른 재협상으로 장래의 전망이 어려워졌다.

한편 ASEAN 회원국 10개국에 의한 아세안경제공동체 (AEC)는 2018년 1월까지 자동차 분야도 포함하여 관세를 거의 철폐하기로 했다. 베트남에는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혼다, 마쓰다 등 주요 일본계 메이커가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 산업을 포함한 ASEAN 역내에서의 경쟁력은 약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유입으로 현지 사업의 재산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공동으로 통상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했다. 일본 측으로는 먼저, ASEAN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를 바로잡고 베트남을 일본계 자동차 산업의 공급 사슬(공급망)로 적용하기 쉽게 하거나, 자동차 등의 고액 상품에 부여

하는 특별 소비세를 재검토하여 내수를 늘리도록 제의할 생각. 이러한 협의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포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 만들기를 재촉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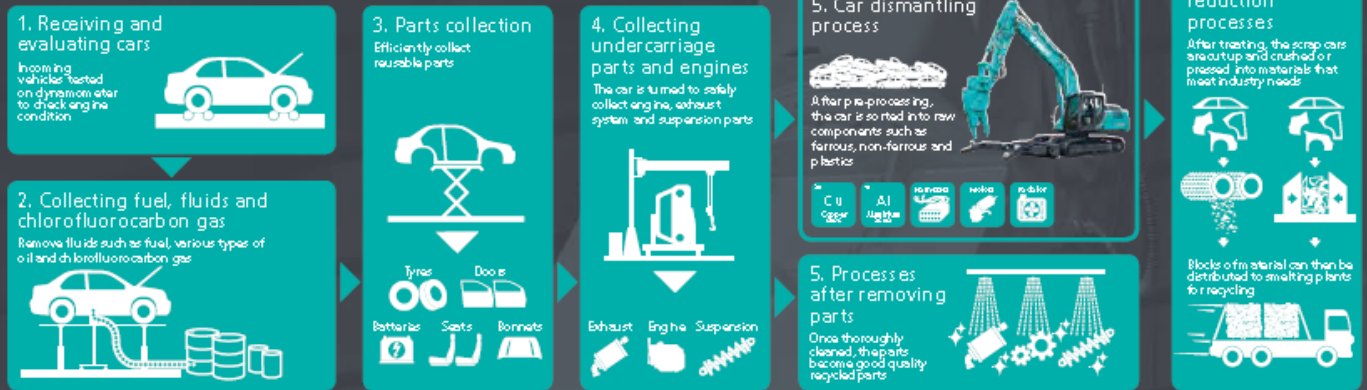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대신과 안(Anh)·베트남상공장관(좌)





##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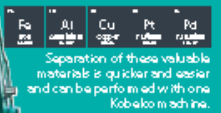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 SK210D



### SK210D



### SK 135SR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